

소설가 천명관

이방인의 역설적 자유에 쏟아지는 떠들썩한 환대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 장소_제공_홍대 상상마당

2004년, 장편소설 《고래》로 ‘우리 소설사에 전인미답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은 천명관 작가가 2007년, 소설집 《유쾌한 하녀 마리스》를 출간하며 다시 한번 한국 문단의 편향성과 가치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스무 살에 이미 ‘유랑과 방외의 운명’으로 스스로를 낙인찍고, ‘그래서 부족의 구성원에게 의당 필요한 기율과 위계, 명예심과 연대의식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 했다고 연막 치는 그의 소설에는 분명 특별한 뭔가가 있다. 그렇기에 이 늦깎이 소설가의 작품에 ‘이방인의 역설적 자유’라는 평론이 따라붙고 독자들의 ‘떠들썩한 환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영화 대본이다, 드라마 작업이다 해서 원래도 바쁜 그였지만 새 소설 집을 내고 두 배로 바빠진 모양이다. 약속 장소인 홍대 어느 카페에 조금 늦게 모습을 드러낸 그는 “지방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서울에 올라오는 날은 약속을 여러 개 잡다보니 정신이 없다”며 미안해했다.

먼저 신작 소설집 얘기부터 시작했다. 표제작 〈유쾌한 마녀 하리사〉를 비롯해 〈더 멋진 인생을 위해〉 〈프랑스혁명사-제인 웰시의 간절한 부탁〉 등은 모두 외국인이 주인공이고 작품의 무대 또한 이국이다. 소설 내용만 보자면 한국인이나 한국과 어떠한 개연성도 찾을 수 없다. 전작 《고래》에 비해서는 보다 현실에 안착한 작품들이지만 이런 무국적의 이야기를 종횡무진 펼칠 수 있는 작가는 한국 문단에 흔치않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소설에 붙는 새롭다는 평가에 대해 고개를 젓는다.

“제 소설을 별로 새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전적이고 복고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원형적 즐거움을 추구하니까요. 다만 우리의 문학 전통이 추구하는 단편 미학과 다르다는 점에서 ‘새롭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요즘 작가가 정규 문학 교육을 받고 이른 나이에 등단하는 것과 달리 그는 생업을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나이 서른이 넘어 ‘영화를 시작’ 했고, 삼십대 후반에야 ‘등단’ 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삶의 통찰과 직관에는 예리한 대신 정해진 형식이나 상상력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개인적으로 한국 문학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모두 동일한 진지함으로 작품을 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문학과 관련된 정형화된 제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문학 작품의 성격이 규정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격입니다. 문단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본격문학의 틀을 의식하지 않고 쓰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의 소설이 ‘재미’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킁킁 터지는 웃음 뒤에 남는 여운은 삶이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아는 작가와 독자 사이의 쓸쓸한 교감이다. 소설가가 되기 이전부터 영화 일을 했고 지금도 드라마, 영화 등의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그인 지라 관객이 없는 영화, 독자가 없는 소설은 상상할 수 없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을 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구원을 문학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스스로 믿음이 부족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식은 아니니까요. 늦은 나이에 문학을 시작한 이유도 있겠지만 2000년대라는 시기 자체가 1980년대나 1990년대와는 문학에 대한 관념 자체가 달라진 탓도 있습니다. 문학이 순수하고 대단한 예술이라서 대중으로부터 고립되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관객이 없는 영화, 독자가 없는 소설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내일 일은 난 모른다”며 웃는다. 처음, 소설가가 되기를 강권(?)했고, 지금도 그를 소설의 영역에 매어두고 싶어 하는 동생의 바람과는 달리 그는 지금 연재하고 있는 장편소설이 내년 봄쯤 끝나면 좀 더 영화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한다.

“작품집에 실린 11편의 소설이 모두 다 다른 작가가 쓴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스타일에 고착되는 것은 싫습니다. 새로운 것을 할 때 재미와 생동감을 느낍니다. 제가 만드는 영화 또한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절을 통해 지금 현재의 애기를 하려고 합니다.”

